

정읍시, 향기·매력 넘치는 '힐링도시' 조성 박차

'향기 도시 브랜드화·향기산업 발전전략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향토자원 연계 국비사업 발굴·구도심 활성화 등 전략 방안 모색

정읍시가 사계절 향기와 매력이 넘쳐나는 새로운 힐링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30일 정읍시에 따르면 향기를 주제로 힐링과 치유를 산업화하고 첨단 기술 상용화를 실현해 아직 없는 도시를 만들어 다시 찾고 싶은 새로운 힐링 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정읍시는 이와 관련, 지난 30일 향기 도시 브랜드화와 향기 산업 육성을 위한 '향기 도시(향기 산업) 발전전략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용역은 정읍에 산재한 기존 향기 자원과 함께 최근 민간투자자로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라벤더 허브농원을 연계한 새로운 향토자원 산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보고회는 유진섭 시장을 비롯한 국·소장, 연구진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수행 기본방향과 산업별 중점과제, 발전전략 계획,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보고에 이어 연구용역에 대한 질의응답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향기공화국 브랜드화를 위한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전략 방안 ▲향기 자원을 활용한 구도심 활성화 전략 방안 ▲시 향토자원의 SWOT분석을 통한 권역별 녹지 네트워크 체계 구축 방안 ▲지역 내 향토자원과 연계한 국비 사업 발굴 ▲1·2·3·6차 산업별 육성 전략 및 상품화 등 향기산업의 선순환 구조 및 산업화 육성 로드맵 전략 수립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이번 연구용역이 타 지방자치단체의 향기 관련 사업을 답습하는 정책개발이 아닌 정읍의 고유한 지리적·기후적 특성을 파악해 향기 자원의 강점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첨단산업단지과 연계한 기술개발과 함께 산업화가 가능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발전전략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읍시는 연구용역의 목표를 향기 도시(향기 산업) 발전에 대한 정책 개발과 로드맵 수립에 두고 관계 부서 워크숍과 외부 전문가 자문, 농업법인·기업체 상담회 등을 통한 폭넓은 의견수렴



정읍시는 지난 30일 '향기 도시(향기 산업) 발전전략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갖고 힐링도시 조성을 위한 장기 전략을 제시했다. <정읍시 제공>

으로 현장 전문성을 높이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유진섭 시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정읍이 갖고 있는 향토 자원의 잠재력을 이끌어 내고 이를 체계화할 수 있는 전략과 사업화 방안을 모색해 대한민국 대표 향기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읍=박기섭 기자 parkks@kwangju.co.kr

전북 8개 해수욕장 4일부터 순차 개장

철저한 방역 속 구시포·동호·변산 등

전북 도내 8개 해수욕장이 오는 4일부터 순차적으로 문을 연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오는 4일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9일 고창 구시포·동호 해수욕장, 11일 부안 변산·격포·고사포·모항·위도 해수욕장이 각각 개장한다.

이들 해수욕장은 8월 16일까지 운영한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해수욕장에 방역관리자와 현장대응반을 운영한다.

해수욕장 이용객은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나 해외여행 후 방문 자제, 마스크 착용, 2m 이상 간격 두기, 침·쿠트물 배출 금지, 음식물 섭취 최소화 등을 지켜야 한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철저한 방역으로 피서객이 안전하게 즐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기섭 기자 nogusu@kwangju.co.kr



방판업체 4곳 휴업조치 콜라텍 집합금지 명령도

익산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

익산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종합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익산시는 이를 위해 오는 3일까지 '집단 감염 위험시설'인 콜라텍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사진>

이들 시설은 집단 감염 위험시설 가운데 타 지역민의 방문이 잦고 이용객도 유난히 많은 곳이라고 익산시는 설명했다.

대규모 방문판매 업체 4곳에 대해서는 일주일간 휴업하도록 했으며 노인 요양시설은 당분간 면회를 금지하도록 했다.

민간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

앞서 익산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장례식장에 대해 휴업 명령을 내렸으며, 어린이집들은 모두 휴업하도록 조치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시민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며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순창사랑상품권' 10% 할인 9월 30일까지 3개월 연장

순창군은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순창사랑상품권 할인 기간을 6월 30일에서 9월 30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순창군은 지난해 8월부터 상품권을 발행해 평소 7%, 명절에는 10%의 할인율을 적용해 왔다.

올해는 지난 3월부터 할인율 10%를 적용해 현재까지 122억원의 상품권이 유통됐다.

상품권은 소상공업소 1078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

황숙주 군수는 "소상공인 경기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아오기 어렵다고 판단해 상품권 할인 기간을 연장했다"며 "상품권 할인 기간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고용지원금 지급 등 다양한 정책으로 지역 경기를 되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정양근 기자 jyg@kwangju.co.kr



미래도시 향한 고창군민 원탁토론회. 고창군은 지난 30일 르네상스웨딩홀에서 '문화도시로 미래를 바꾸어 가는 고창'을 주제로 '2020 고창군민 원탁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100여명의 군민들이 참가해 ▲문화치유도시 특화 프로그램 구상 ▲창의 문화 인력양성 과제 마련 ▲주민 문화활동 참여방안 등에 대해 3시간 가량 집중 토론을 벌였다. <고창군 제공>

정읍시, 여름철 폭염·장마 대비 가축 질병 중점 방역

정읍시는 여름철 폭염·장마 등으로 인한 가축 질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 질병 중점 방역 관리'를 실시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정읍시는 올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돼 하절기 높고 습한 기후로 인한 피해가 발

생하지 않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가축 질병 예방 수칙으로는 사료에 곰팡이나 세균이 증식되지 않도록 사료 건조 상태 유지, 모기 매개성 질병 예방 축사 주변 물웅덩이를 제거하고 살충제로 모기를 방제, 열사병 예방을 위해 축사

벽·지붕에 단열재를 설치, 환풍기 설치 및 주기적인 환기 실시, 가축 탈수 예방 신선한 물 수시 공급, 축사와 주변에 대한 철저한 소독 실시 등을 안내했다.

또 장마철 방역 관리 수칙으로 주 2회 축사 내·외 부 청소 및 소독, 축사 침수 시 신속한 배수 후 소독

실시, 건조 및 배합사료가 물에 젖지 않도록 관리, 사료급여통 및 급수조의 청결 상태를 유지, 가축의 스트레스 최소화 등 질병에 대한 면역력 관리 등을 설명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여름철 가축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자율방역이 가장 중요하다"며 "농장 출입자량 통제와 소독 등 차단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